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

한 영 옥[†]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착 유형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을 횡-문화적 입장에서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어머니의 애착 유형의 분포는 두 국가간에 차이가 없었고, 한국 어머니들이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아동행동문제에서는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신체적 호소'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보인 반면, 공격성의 행동문제는 미국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둘째로 한국집단과 달리 미국집단에서는 안정 애착유형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가 불안정 애착유형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행동문제를 더 적게 나타내고 있듯, 미국집단에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자녀의 발달 전반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미국집단에서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애착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이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어 :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아동행동문제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37-CB003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한 영 옥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20번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 FAX : 02-970-5569 / E-mail: hyo8116@hanmail.net

오래 전부터 부모는, 그 중에서도 모성은 영아의 생존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식되어온 바다. 많은 학자들은 영아가 건강한 성장과 심리발달을 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정신분석이나 신프로이드 학파의 학자들에 의해 발달 병리, 생애 초기 모성-영아관계와 이후의 적응, 신뢰감이나 안정감을 획득하는 대상관계의 형성에 집중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내적 작동모델을 바탕으로 한 애착이론이다.

영유아 애착이론은 영아와 양육자간의 애정적 유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양육자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반응성이다.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진전됨에 따라 영아는 양육자의 반응성과 접근성에 대해 안정된 신뢰와 기대를 발전시켜 나가며, 영아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무가치한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 또한 발전시켜나간다. 애착이론가들은 자신과 애착 인물과의 경험에 근거한 이러한 신념, 지식들을 정신적 표상 또는 내적 작동모델로 개념화하고 있다.

내적 작동모델 개념은 부모의 영유아기 경험과 이후 부모로서의 행동사이의 연계과정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즉 영아가 자신과 양육자에 대해 세우게 되는 정신적 표상으로서 생후 약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초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영아는 애착 인물의 가능한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아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각기 다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이론의 기본 개념은 이러한 정신적 표상이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즉,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까지 자신과 부모에 대해 갖게 된 역할이 내면화되어 형성된 정신적 표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나 작용하며, 이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Scharff, 1996) 부모가 되었을 때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녀와 형성하는 애착관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Bretherton, 1991).

이러한 연속성의 가정하에서, Hazan과 Shaver(1987)는 낭만적 사랑 관계에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들 역시 애착 과정에 의해 지배받으며 아동기의 일차적인 양육자와의 애착 특징과 낭만적 관계에서 애착 양상이 유사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런 생각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Ainsworth, Bechar, Waters 및 Wall(1978)에 의해 최초로 확인된 세 개의 애착양식(즉 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 양식)과 동일한 성인기 애착유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애착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안정된 애착 유형(Secure Attachment Style): 타인과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의존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b) 회피적 애착 유형(Avoidant Attachment Style): 회피적 애착 유형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히려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할까봐 걱정한다.

c) 불안-양가적 애착 유형(Anxious-Ambivalent Style): 이 애착 유형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과 지나치게 많이 가까워지기를 원하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들이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Crowell과 Feldman(1988, 1989)은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이 자녀와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상아동집단에서는 55%의 어머니가 불안정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임상아동집단의 경우에는 90%의 어머니가 불안정한 내적 작동모델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 형태가 자녀의 행동문제 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owan과 Cowan 및 Pearson(1996)은 부모의 애착 역사와 그들 자녀의 외현화 및 내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수행모델은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의 강력한 예언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국내연구로는, 강차연(1999)의 연구에서 불안정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정상 아동집단보다 임상 아동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애착 유형과 자녀의 행동문제간의 경로에 있어서도 임상 아동집단의 경우에는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어머니의 애착 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거 애착 경험과 이 과거 경험과 연관된 현재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어머니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영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현재의 심리적 특성을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으로 채택한 근거는 선행연구에서 애착과 자아존중감(Fenny & Noller,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Griffin & Bartholomew, 1994b; McCormick & Kennedy, 1994; Bylsma et al, 1997), 애착과 우울(Lyons-Ruth, K, 1992; Belsky et al, 1986; Lyrton, 1990; Dishion et al, 1991; Weiss & Schwarts, 1996)), 그리고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Crandall, 1972; Mortimer & Lorence, 1980)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애착 유형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횡문화적(cross-cultural) 입장에서 한국 집단과 미국 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제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들을 이해하고, 아동의 행동 문제에 개입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어머니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애착 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집단(한국/미국)과 애착유형(안정/불안정)에 따라 아동행동문제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애착 유형은 한국 및 미국 아동집단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아동 141명과 그들의 어머니 141명으로 한국 표본이 71쌍, 미국 표본이 70쌍이었다. 한국 표본은 서울시 소재의 5개의 초등학교에서 표집하였고, 미국 표본의 경우에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시 소재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 6개 시설 기관에서 표집하였다. 학교 및 기관선정은 한국의 경우 연구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교사들에게 검사지를 배포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기관에 연구계획에 대한 안내와 협조문을 보낸 후 표집을 허락한 기관에만 검사지를 배포하였다. 한국과 미국 아동들 모두 지적 능력의 이상과 기질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집단의 어머니들도 지적문제나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이었다.

검사는 2001년 3월 11일부터 5월 17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지는 학교나 시설기관의 교사를 통해 부모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50분 정도이다. 검사지 수거율은 한국이 57%, 미국이 33%이었으며, 완성된 검사지는 한국 집단에서 114부, 미국집단에서 106부가 수거되었으나 애착유형척도와 애착역사척도에서 서로 일치되는 표본만을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로 삼았다. 그 결과 한국집단은 71쌍, 미국집단은 70쌍이었다.

연구대상 자녀들과 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애착척도

어머니의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azen과 Shaver(1987)의 3범주 모델의 애착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표 1. 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n=71)	미국(n=70)	집단차
아동의 나이(년)	9.6(SD=1.8)	8.8(SD=2.4)	$t = 2.42$
아동의 성별			$\chi^2 = .35$
남아	35(49.3%)	36(50.7%)	
여아	38(54.3%)	32(45.7%)	
아동의 출생순서			$\chi^2 = 17.99^{***}$
첫째	34(47.9%)	46(65.7%)	
둘째	35(49.3%)	14(20.0%)	
셋째	2(2.8%)	3(4.3%)	
넷째	0(0%)	7(10.0%)	
아동의 인종	한국인(100%)	백인(67.1%) 흑인(18.6%) 아시아계(7.1%) 히스패닉(2.9%) 기타(4.3%)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n=71)	미국(n=70)	집단차
어머니의 나이(년)		39.4(SD=3.1)	38.3(SD=6.5)	$t = 1.31$
결혼 기간(년)		13.3(SD=3.1)	11.3(SD=6.7)	$t = 2.27$
결혼 상태	결혼	71(100%)	57(81%)	$\chi^2=18.31^{***}$
	미혼	0(0%)	13(19%)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음	30(42%)	51(73%)	$\chi^2=14.68^{**}$
	없음	41(58%)	19(27%)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학이상	54(76%)	62(89%)	$\chi^2=8.13$
	고졸	16(23%)	7(10%)	
	고졸미만	1(1%)	1(1%)	
	전체	71(100%)	70(100%)	

* $p < .05$, ** $p < .01$, *** $p < .001$

연구에서 연구자가 번역한 척도들의 번역과정은 위스컨신 주립대학 교육심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는 2명의 대학원생에게 번역하게 한 후 그들의 번역문과 본 연구자의 번역문을 비교 검토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은 서로 논의 후 수정 번역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의 3가지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에게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한 다음 위의 세 가지 애착양식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애착역사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측정 질문지법이 면접법과 달리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이 경험에 대한 현재의 마음 상태의 심층적인 측면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azen과 Shaver(1986)의 부모 양육방식 질문지를 연구자

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따뜻한/반응적’, ‘냉담한/거부적’, 그리고 ‘양가적/일관성이 없는’의 세 가지 양육 유형을 설명하는 문장을 주고 어머니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한 다음, 세 가지 양육유형 중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유형 하나를 각각 선택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양식과 애착경험이 서로 일치하는 사람들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즉 본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따뜻한/반응적’ 애착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회피적 애착양식이나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냉담한/거부적’ 애착경험을 갖고 있거나 혹은 ‘양가적/일관성이 없는’ 애착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아존중감 척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검사를 전병제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이 도구는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 이었고 한국집단과 미국 집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1 과 .77이었다.

우울증 척도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연(1985)이 번안한 Beck의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Beck과 그의 동료들(1967)이 만든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eck(1967)은 9점 이하를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10~15점까지를 경우울증, 16~23점은 우울증, 24~63점은 중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 이었고,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5 와 .80 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4문항으로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하위척도는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척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본 연구의 내용과 부합되는 3개의 하위척도만 사용하였다. 그 3개의 하위척도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숙달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나머지 3개 하위척도는 '개인적 성장', '삶의 목표', '자기-수용'인데 이 하위척도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2 이었고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8 와 .94 이었다.

아동행동평가 척도

아동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사용하였으며, 한국 집단은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이는 3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시사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2에서 .82까지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성인애착유형분포와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χ^2 , T검증을 하였고,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two-way ANOVA를 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AMOS 기법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결 과

어머니의 애착 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국가간 차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유형의 분포와 국가간 차이를 보면 표 3과 같다. 한국, 미국집단 모두

안정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피형, 불안/양가형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형의 분포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3.5%(38명), 64.3%(45명)이었고 회피형의 분포는 각각 40.8%(29명), 28.6%(20명)이었으며 불안/양가형의 분포는 각각 5.6%(4명), 7.1%(5명)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의 분포면에서 국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의 어머니의 애착유형의 분포에서 양 국가 모두 불안/양가적 유형이 10% 미만으로 적었고 세 가지의 애착유형에서 국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양가적 유형과 회피형을 합하여 불안정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애착유형은 안정형과 불안정형 두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3. 한국 및 미국 집단에서의 애착유형 분포

	한국	미국	전체	χ^2
안정형	38(53.5%)	45(64.3%)	83(58.9%)	2.35
회피형	29(40.8%)	20(28.6%)	49(34.8%)	
불안/양가형	4(5.6%)	5(7.1%)	9(6.4%)	
전체	71(100%)	70(100%)	141(100%)	

df=2 $p > .05$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국가간 차이는 표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국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미국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한국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국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총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자율성과 환경속달감 하위척도에서 미국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 및 미국집단과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유형의 주요효과 는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불안정 애착유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안정된 애착유형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들이 보다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

표 4. 한국과 미국 어머니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

	한국 (n=71)	미국 (n=70)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아존중감	29.91(4.38)	34.27(4.11)	-6.09***
우울감	7.86(6.34)	5.97(6.40)	1.75
심리적 안녕감 총점수	174.59(25.26)	182.97(31.33)	-1.74
하위척도			
- 자율성	53.91(9.16)	60.15(13.53)	-3.21**
- 환경속달감	57.22(10.25)	61.04(10.89)	-2.12*
- 대인관계	64.90(10.56)	61.07(14.41)	1.80

* $p < .05$, ** $p < .01$, *** $p < .001$

화 행동문제, 총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주효과와 경우, 신체증상과 공격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한국 아동들이 미국 아동들에 비해 신체증상의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많이 보이는 반면 미국 아동들은 한국 아동들에 비해 공격성의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에 있어 집단과 어머니의 애착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지만, 국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한국과 미국으로 구분하여 안정 및 불안정 애착유형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아동행동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즉 안정 애착유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행동문제와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행동문제가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집단에서는 안정 애착유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정서 불안정, 내재화행동문제, 외현화행동문제, 총 행동문제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질수록 자녀들의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정서 불안정, 내재화행동문제 외현화행동문제 총 행동문제 영역에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중

표 5. 국가별 애착유형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의 차이검증

	집단 애착유형	한국(<i>n</i> = 71)		<i>T</i>	미국(<i>n</i> = 70)		<i>T</i>
		안정(38명)	불안정(33명)		안정(45명)	불안정(25명)	
위축	평균(표준편차)	1.26(1.67)	1.39(1.98)	-.30	1.08(1.37)	2.32(2.79)	-2.47*
신체적 호소		1.21(1.96)	1.45(2.39)	-.47	.44(.89)	.52(1.12)	-.31
우울/불안		3.21(2.94)	4.09(3.86)	-1.08	2.13(2.76)	4.32(4.23)	-2.61*
사회적 미성숙		1.92(2.05)	2.27(1.90)	-.74	1.37(1.83)	1.96(1.79)	-1.28
사고의 문제		.60(1.15)	.30(.58)	1.36	.44(1.01)	.56(.82)	-.48
주의집중문제		3.13(2.74)	2.93(2.82)	.29	2.60(2.70)	3.36(2.59)	-1.14
비행		.84(1.15)	1.39(1.41)	-1.81	.80(1.86)	1.68(1.43)	-2.04*
공격성		4.73(3.77)	5.54(3.97)	-.87	5.26(5.67)	8.60(6.45)	-2.24*
성문제		.31(.70)	.45(.97)	-.69	.13(.40)	.24(.43)	-1.02
정서불안정		2.63(1.99)	3.75(3.56)	-1.67	2.13(2.48)	3.40(2.53)	-2.03*
내재화행동문제		5.60(5.45)	6.81(6.50)	-.85	3.51(3.45)	6.80(6.52)	-2.76**
외현화행동문제		5.57(4.39)	6.90(5.02)	-1.18	6.06(7.14)	10.28(7.48)	-2.32*
총행동문제		19.73(13.23)	22.87(15.59)	-.91	17.11(14.80)	29.24(18.24)	-3.02**

* *p* < .05, ** *p* < .01

합해 볼 때, 한국집단은 어머니의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에서의 차이가 없는데 반해 미국집단은 어머니의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에서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의 효과에 있어 미국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안정형과 불안정형의 두 범주로 하여 변인을 만들었고, 아동 행동문제의 13가지 요인들은 크게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로 통합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집단의 경우, 어머니 애착유형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분석은 미국집단에 국한하여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및 아동행동문제간의 경로탐색

미국집단의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아동행동문제간의 경로탐색

본 연구에서는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자녀의 행동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 각각의 독립변인이 되며 동시에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독립변인이 되는 직, 간접적인 인과적 경로모형을 가정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모든 어머니 변인의 종속변인이 된다.

미국집단에서의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미국집단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하였을 경우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애착유형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우울감만을 통하여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집단의 애착유형-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및 심리적 안녕감- 아동행동문제의 경로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경로분석에 포함된 미국집단의 각 변인들간의 상호상관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내재화 행동문제	외재화 행동문제
애착유형	1.00					
자아존중감	.42***	1.00				
우울감	-.49***	-.47***	1.00			
심리적안녕감	.50***	.58***	-.77***	1.00		
내재화행동문제	-.32**	-.44***	.53***	-.36**	1.00	
외재화행동문제	-.27*	-.39**	.52***	-.39**	.49***	1.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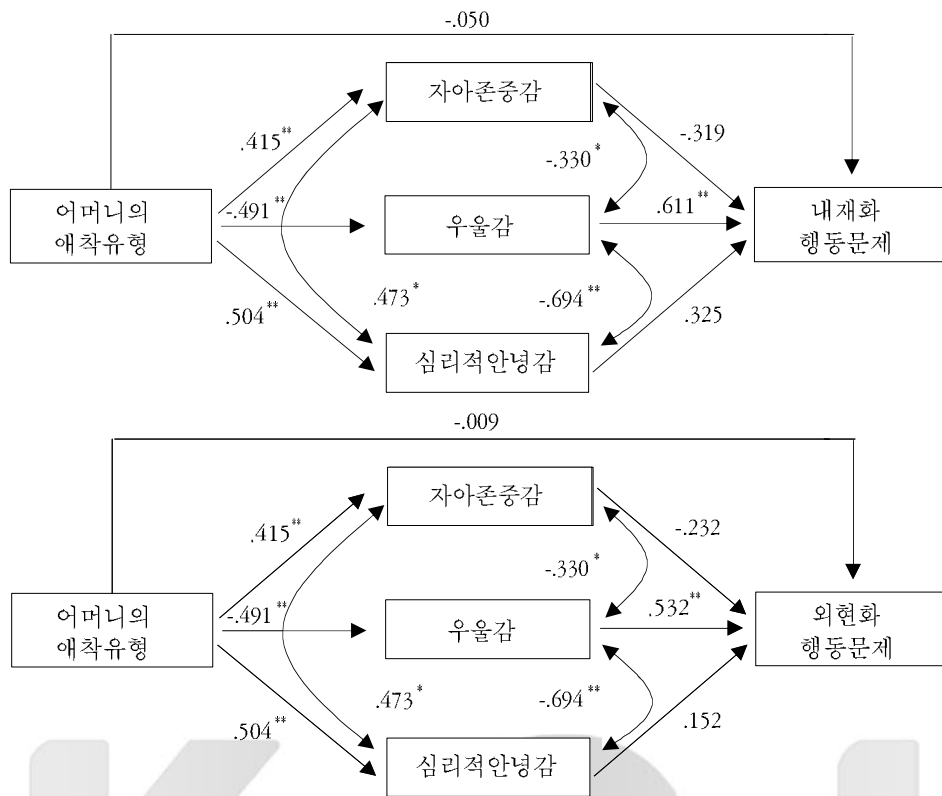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집단의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경로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착 유형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집단과 미국집단의 이러한 특징들을 횡문화적 입장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한국 및 미국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 각기 71쌍을 대상으로 하여 애착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우울증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 아동 행동평가 척도를 실시한 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과

그것이 갖는 함의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어머니의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아동행동문제에서의 국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애착 유형의 분포는 국가간에 차이가 없었다. 애착 유형의 분포가 양 국가 모두 안정형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분포 순서가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장휘숙, 1997; Campos et al., 1983; Hazan & Shaver, 1987). 둘째,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총점수는 국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수준과 심리적 안녕

감의 하위 척도인 자율성과 환경속달감에서는 미국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한국 어머니들이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자신감이나 주장성, 독립성이 부족함을 시사하는데, 이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능력이 인정받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미국의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에 비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chi^2=14.68$, $p<.01$,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 보다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F(1, 139)=3.12$, $p<.10$, 점수 위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아동행동문제에서는 10개 문제행동영역 중 8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신체적 호소'의 문제행동은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보인 반면, '공격성'의 문제행동은 미국 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호소는 의존욕구가 신체적 호소로 전치된 것이며(Carson, 1972), 이것이 그들의 스트레스 및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Trimboli & Kilgore, 1983)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나 불안을 건설적으로 표출할만한 통로가 부족하지 않나 사료된다. 예컨대 아동 및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의 확장이라든지, 레크레이션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다양성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 이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한편 미국 아동들이 한국 아동들에 비해 공격성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보인 점은 우리나라 아동이 신체적 호소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즉 우리나라 아동들은 불만이나 스트레스

를 신체적인 호소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데 비해 미국 아동의 경우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보다 직접적인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둘째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집단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안정 애착유형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들 보다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총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Cowen 등(1996), 강차연(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집단의 경우, 애착유형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13가지 전 아동행동문제 영역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애착유형의 영향이 한국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애착유형의 평가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애착유형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집단에서는 애착유형이 아동행동문제 이외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국집단에서는 애착유형의 분류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의 효과는 미국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그 이유가 애착유형에 대한 평가과정의 문제 이외에, 한국집단은 미국집단에 비해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에 있어 애착유형의 효과보다 다른 기타 변인들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추론된다. 여기서 어머니의 애착유형 이외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 변인, 아동변인, 가족체계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우선 어머니 변인으로 자아개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인 속성과 양육방식, 결혼적응과 같은 어머니와 관련된 주변환경 변인을 들 수 있겠다. 아동변인으로는 아동의 기질이나 사회적 유능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아버지 변인이나 가족체계 변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양육방식, 아버지의 애착 유형, 결혼갈등과 같은 가족관계의 질과 개인의 적응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등 애착과 가족체계의 통합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연구들이(강차연, 1999; Cohn, Cowan, Cowan, & Pearson, 1992; Cowen 등, 1996) 나오고 있다. 강차연(1999), 권영옥과 이순형(1998)은 결혼적응 또는 부부갈등이 아동행동문제에 중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Cohn 등(1992)은 긍정적인 결혼관계가 부정적인 애착의 대물림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Cowan 등(1996)은 어머니의 애착유형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애착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졌을 때 아동이 더 심각한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제 변인들 특히 애착과 가족체계의 통합이 아동행동문제에 끼치는 영향은 한국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아닌가 추론된다. 실례로 본 연구에서 편모나 이혼율에 있어 미국집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chi^2=18.31$, $p<.001$, 편모의 비율이 더 적은 한국집단의 아동들이 이런 비율이 좀더 빈번한 미국집단의 아동보다 부부갈등의 지각이 더 심각하여 아동행동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착유형뿐만 아니라 전술한 제 변인들이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집단

에 비해 미국집단이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에 있어 애착유형의 효과가 다른 기타 변인들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추론된 것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미국집단에서 실시한 어머니의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및 아동행동문제간의 경로탐색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우울감을 통하여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우울감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로에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집단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우울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어머니의 애착유형분류와 어머니의 후속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Bowlby의 이론적 근거 및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이 자녀의 행동문제와 강한 연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들(Benoit et al., 1989; Cowen et al., 1996; Crowell & Feldman, 1988)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째, 영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양식이 일생을 통하여 변화되거나 분화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유형 척도가 범주 척도로 단순하여 애착유형을 제대로 평가해내지 못하는 평가의 제한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국집단의 결과에서 시사되는 비는 모의 애착유형과 우울감이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들, 특히 애착이나 우울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아동의 행동문제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한국집단의 결과를 토대로 해 볼 때 어머니의 애착유형 뿐만 아니라 애착과 가족체계의 통합적인 접근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줄 수 있음이 추론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문제이다.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서 표집된 사례가 각각 71, 70 쌍으로 안정된 분석에 충분한 표집의 크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두 국가의 표집에서 어머니의 직업, 결혼상태 등 중요할 수 있는 변인들이 통제되지 못하여 횡문화적 비교에 제한점이 있으며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척도 선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유형 척도가 범주 척도로 단순하여 애착 유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내적작동모델이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를 겪기도 하기 때문에 애착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종단적연구 방법과 같은 개인의 애착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애착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내적작동모델의 변화의 양상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것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의 문제이다. 특히 아동행동평가척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를 어머니가 평가하였는데, 아동의 문제를 누가 평가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보다 타당화 하기 위해서 평가자의 지각이 좀 더 객관적인 교사평정과 같은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동행동

문제에 미치는 아버지의 특성은 다루고 있지 않는데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특성과 부모-자녀 세대간의 전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특성뿐 아니라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특성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내적 작동모델을 동시에 측정하여 아동행동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도 함께 다루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차연 (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영옥, 이순형 (1998).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한국이동학회지*, 20(4), 61-74.
- 김연 (1985). 우울증의 귀인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유은희(1991). 성인자녀 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생활변화의 적응: 전생애적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여성개발원)*, 111-143.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nsworth, M. D., Blehar, M. I.,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4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and Row.
- Belsky, J., Hertzog, C., & Rovin, M. (1986) Causal analysis of multiple determinants of parenting: Empirical and methodological advances. In M. Lamb, A. Brown, & B. Rogff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V. 4, pp.153-202). Hillsdale, NJ: Erlbaum.
- Benoit, D & Parker, K.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The role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 D. Sharff(199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pp. 381-392). Northvale: Jason & Aronson Inc.
- Bretherton, I. (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e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9-32) London: Routledge.
- Bylsma, W. H., Cozzarelli, C., & Sumer, N. (1997).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global self-esteem.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 1-16.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aith & J. 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 2. *Infancy and psychobiology*, pp. 783-915). New York: Wiley.
- Carson, R. (1972). MMPI profile interpretation. Paper read at the Seventh Annual Symposium on the MMPI. Maxico city, Maxico.
- Cohn, D. A.,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417-431.
-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andall, V. C. (1972, November). The Fels Study : Some contributions to personality development and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ulthood. *Seminar Psychiatry*, 4, 383-398.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Assessment of mother's working models of relationship: some clinical implica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3), 173-237.

- Dishion, T. J., Patterson, G. R., Stoolmiller, M., & Skinner, M. L. (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72-180.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Feeney, J.,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74-276.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V.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17-52*). London: Jessica Kingsely Publishers.
- Hazan, C., & Shaver, P. R. (1986). *Parental caregiving style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Lyons-Ruth, K. (1992).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disorganized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and hostile-aggressive behavior in the preschool classroom: A prospective longitudinal view from infancy to age five. In D. Cicchetti & S. Toth (Ed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Depression*(pp. 131-169).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Lytton, H. (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5), 683-697.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7.
- Mortimer, T. J., & Lorence, J. (1980) Self-concept stability and change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In Simmons, R. G. (ed.), *Research in Community Mental Health*. JAI Press, Greenwich, CT.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ichters, J., & Pellegrini, David. (1989). Depressed mothers' judgments about their children : An examination of the depression-distortion hypothesis. *Child Development, 60*, 1068-1075.
- Strand, P. S., & Wahler, R. G. (1996). Predicting maladaptive parenting: role of maternal object rel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1), 43-51.
- Scharff, D. E. (1996).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Northvale : Jason and Aronson Inc.
- Trimboli, R., & Kilgore, R. (1983). A psychodynamic approach to MMPI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14-626.
- Weiss, L. H. & Schwarz, J. C.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Child Development, 67*, 2101-2114.

원고접수일 : 2001. 9.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2. 2. 5.

게재결정일 : 2002. 2. 26.

The Effect of a Maternal Attachment Style on Child Behavioral Problems: A Cross Cultural Study of Korea and America

Young-Ok Han

Seoul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 maternal attachment style influences the self-esteem,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behavioral problems of her children. This is a cross cultural study in which a Korean population is compared with an American popul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of maternal attachment styles between Korea and Americ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evel of Korean mothers' self-esteem was lower than that of American mothers. In addition, the 'somatic complaints' behavioral problem was more frequent in the Korean child group. But the 'aggression' behavioral problem was more frequent in the American child group. Second, in the American group the children of mothers with an unstable attachment style showed more frequent behavioral problems than the children of mothers with a stable attachment style. It becomes clear that a maternal attachment style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 the child development. Lastly, when examining the paths through which a maternal attachment style influences her child's behavior, this researcher discovered that in the American group, the maternal attachment style indirectly influenced bo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of the children through the maternal depression. This suggests that the maternal depression works as an antagonizing factor along the path in which a maternal attachment style influences her child's behavior.

Keywords : Attachment Style,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Self-Esteem,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